

LA한인 「징용보상」 첫소송

일본유학중 시멘트공장 강제노역 정재원씨, 일본회사·미법인등 상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에 동원됐던 정재원(77)씨가 일본회사를 상대로 4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징용문제로 인해 한인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일본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

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세계 굴지의 시멘트회사인 다이헤오 시멘트(정씨를 강제 노동시켰던 오노다 시멘트의 후신)·다이헤오 시멘트 USA(다이헤오 시멘트의 미국내 현지법인)·오노다 시멘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 등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와 관련, 지난 7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됐고 ▲징용의 최대 피해자인 조선인 출신이며 ▲노동 장소가 조선이었다는 점에서 앞

으로 징용 관련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인 정씨는 도쿄호세이 대학에 유학중이던 1943년 12월 학병 지원을 거부하다 함남 문천면에 있던 오노다 시멘트 공장 채석장으로 보내져 해방 때까지 1년8개월 동안 징용에 처해졌다.

정씨는 『40여년을 교단에 바친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힌 만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언제 죽을 지 모르는 공포와 극심한 기아 속에 인

간 이하의 삶을 살았으며 연일 계속되는 심한 노동으로 허리를 다쳐 평생 고생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해방후 경기·경동고 등에서 영어교사로 있었으며 지난 87년 이민왔다.

정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신혜원·케네스 한 변호사는 『정신대도 징용도 한국인을 최대의 제물로 삼았던 일제의 전쟁범죄였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징용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응징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한우성기자〉

콘티넨탈 양복점

\$299 + Tax
(맞춤양복 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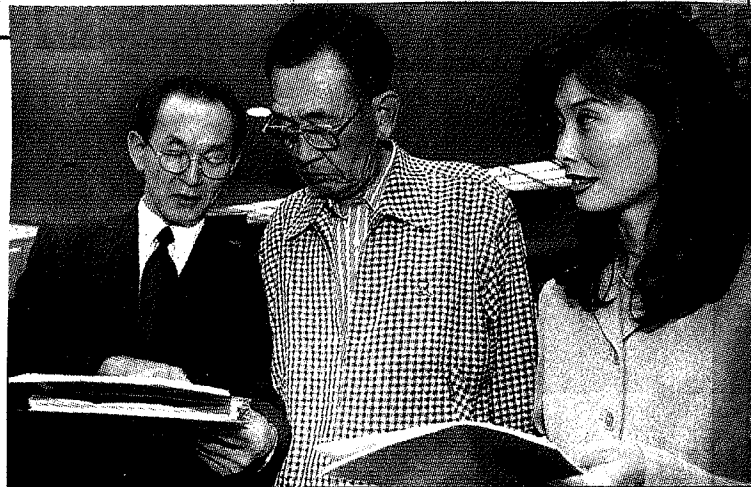
(310)854-0386
베버리 힐스

LA FAMILY 안경

검안·안경테·안경알

\$89부터

검안사가 직접 운영하는
 패밀리 안경원
 6가와 웨스턴
Tel.(213)384-6565



징용자 정재원(가운데)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4일 LA수피리어법원에 일본회사를 소송한 케네스 한 변호사와 신혜원 변호사가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재철 기자〉

「징용보상」 소송

〈1면서 계속〉

이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측이 ▲공식사과·재발방지 노력을 현명하고 ▲체임과 응징적 피해를 보상금 지급하며 ▲보상이 충

분히 실현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워싱턴주에서 징용자 최재식씨가 연방지법에 신일본 제철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